

불교토착화 나라마다 다르다

이기영박사 '동아시아 3국...' 학술회의서 주제발표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3국의 불교는 각기 다른 역사적 순환속에서 많은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서로 다른 모습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기영 원장(한국불교연구원)은 지난 26~27일 서울 힐튼호텔서 열린 동아시아 불교와 중국 인민일보 공동주최 '동양사상과 사회발전' 주제의 96국제학술회의에서 '동아시아 삼국에 있어서의 불교와 문화' 주제 발표를 통해 3국의 불교의 수용과 변이 과정의 고찰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는 설명이다. 나름대로의 우주론과 역사철학 윤리 문화적 풍토 등 시대와 사람·장소에 따라 임의로 수용되고 변

韓-보수 日-자유 中-가변성 특징

형되는 것은 필연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 일본의 경우 문화의 축이 중국에 있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봉고의 중국지배에 의한 영향으로 중국과 한국에서의 불교적 영향력은 점차 상실된 반면 봉고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던 일본은 불교의 완전 토착화에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것. 따라서 불교는 일본인의 언어와 생활

와 같은 서양 철학자들조차도 불교의 사상이 말비탕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한다. 죽음을 이기는 종교 불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혜를 통해 삶의正道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 따라서 이기적인 현대문명에서도 이타주의적 보시를 통한 정토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문화의 토양으로 자리잡게 됐으나, 한국은 조선왕조가 들어서며 지배이념이 바뀌는 진통을 겪으면서 과거의 문화전통에서 단절되고 급기야는 왜곡된 역사관을 갖게 됐으며 이는 결국 한국의 현대사회의 불교가 지성인들로부터 외면받는 주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불교와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에 따른 이해와 실천은 분명 인간 역사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원장은 아놀드 토인비나 칼 야스퍼스에 보냈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日학자 의상사상 왜곡 비판

김지견박사, 이시이 '화엄사상 연구' 분석

김지견박사(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日불교학자 이시이교수가 지난 2월 동아시아의 화엄사상을 집대성해서 펴낸 《화엄사상의 연구》(춘추사刊)에서 의상대사(625~702)의 독창적인 이론과 수행과정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검토결과 이 책은 근거없는 사실을 토대로 고의로 의상대사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반박하는



아니다)라는 독창적 사상체계를 세웠다. 그러나 이시이교수는 문제의 부분인 이 책 '제1부 제3장 신라의 화

사가 스승의 교시를 받아 '화엄일승법계도'를 완성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김지견박사는 이시이교수 자신도 인정하듯이 전승과정에서 수많은 탈락과 오식으로 밀물만한 텍스트가 못되는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을 그대로 인용한에서 비롯된 것이며,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었던 것을 신라화엄종의 종조를 무시, 한국의 화엄사상 전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박사는 '단적으로 해인사에 소장된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總錄)>이나 <법계도기원통기(法界圖記圓通記)> 등에는 분명히 '의'가 없는 '의'로 표기돼 있는 것만 보아도 이시이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다'고 단언했다.

오·탈자 많은 신수대장경 인용 잘못

김박사는 '의'가 없는 '의'로 표기하면서 의상대사가 새 이론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함성한 조어로 추정했다. 용어 끝에 '의(의)'를 붙인 것은 '의'와 '의'를 함성한 것으로 정식 범어(산스크리트)에는 없는 영타리 조어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시이교수는 스승 지엄이 이런 과격적 조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상대

의'편에서 '의'와 '의'라고 표기하면서 의상대사가 새 이론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함성한 조어로 추정했다. 용어 끝에 '의(의)'를 붙인 것은 '의'와 '의'를 함성한 것으로 정식 범어(산스크리트)에는 없는 영타리 조어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시이교수는 스승 지엄이 이런 과격적 조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상대

"문화재 전문행정인 늘려야"

경북도청 오장홍씨 석사논문 '문화재관리...'

일 선에서 문화재 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우리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끈다. 이 논문은 오장홍씨(경북도청 문화재관리과)가 <문화재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경상북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경북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이론적 측면을 탈피해 행정실선에서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 관리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조사 강화·보수자 양성등 대안제시

석사학위논문으로 이론적 측면을 탈피해 행정실선에서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 관리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씨가 지적한 문제점은 중앙·지방관서의 조직·인력, 문화재 지정, 보수, 예산 등 크게 네가지, 우선 조직·인력인 경우 각 도는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문화예술관에 문화·예술·문화재계가 있으나 행정상 업무처리를 통괄해야 하는 처지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전문적인 문화재업무 수행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문화재지정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수시점검의 소극성 및 정부

와 국민의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을 꼽았으며, 보수 문제점으로는 문화재보수·설계업체 부족과 공기지연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들었다. 또 예산부족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국비보조사업이 제때 사업비가 책정되지 못해 보수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오씨는 조직·인력인 경우 건조물 1.2개와 기념물별로 구성된 문화재과를 설치하고, 도에는 학예연구직을 증원하며, 예산의 경우에는 국공자금을 병용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주장했다.

지정문제도 문화재관리국이 연차적으로 시·도를 정해 지정·비지정문화재를 일괄조사를 걸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수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수기술자 양성과 엄격한 공사시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막론하고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가 보수비 지원신청 시 보수대상 문화재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규모 정비, 보수사업의 계획수립시에는 사전에 도와 협의, 비지정문화재의 보수비 지원신청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조국사 지능은 돈오(頓悟)론자인가 점수(漸修)론자인가. 그러나 학자들은 지능에 있어 이같은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지능의 돈(頓)은 깨달음의 시간이나 단계보다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5편의 논문을 통해 지능 사상에 대한 철학·불교학·윤리학·역사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찰을 시도한 연구서 <지능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사상가대계 제3권)는 학계의 관심을 끈다.

정신문화연구원 '지능의 사상과 현대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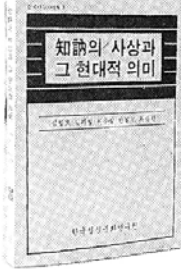
우선 김형효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는 '지능사상의 실존성과 본질성' 연구를 통해 그동안 일반적으로 인식돼 온 깨달음(頓)의 '때' 즉 시간단계의 중요성을 지능의 돈오점수(頓悟漸修)사상의 고찰을 통해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하고 깨달

"깨달음의 시간 단계 무의미"

禪敎일치 지향 좌선폐단 지적... 사회문제에도 관심

을 수 있다는 사실과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종후수(先頓後修)를 시간적 순차로서만 간주하게 될 경우, 돈오를 마치지 못했기에 윤리적 수행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른바 사념(思念)과 실천의 괴리를 낳는 괴상한 반종교적 자기당착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희성교수(서경대 종교학)는 '지능 사상의 구조'에서 지능의 돈오(頓悟)는 수행이전의 깨달음인 해오(解悟)로써 선의 시작일 뿐이며, 점차적 수행(漸修)이 뒤따라야 하는 것을

에서 원효와의 비교를 통해 지능은 자신의 철학을 표명하지는 않으나 함축이 깊어 끊임없이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언설의 소유자였다고 단정한다. 원효가 경전 주석 방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전하려 한 것과는 달리 지능은 몇 안되는 주석서에조차 자신의 의견을 전혀 삼입하지 않았으며, 원효의 장황한 언설과는 달리 지능에게는 그런 언더더기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한교수는 원효가 '철학자'였다면 지능은 '교사'였다는 말로 지능의 자상함과 친철한, 까지도 포용하는 보다 확대된 신불교운동으로 전개된 것으로, 이는 속세를 떠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던 정혜결사(定慧結社)가 속세를 향한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허우성교수(경희대 철학)는 '지능의 윤리사상의 특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몸과 마음의 청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지능의 윤리사상을 소개하면서 현대에서 마음과 몸의 청정의 연속을 강조하는 보조선(보조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우>



부드러움을 설명한다. 최병헌교수(서울대 역사학)는 '지능의 수행과정과 정혜결사(定慧結社)'에서 지능의 정혜결사는 역사를 정화하기 위한 신불교운동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거조사(居遁寺)에서의 출가자 위주의 수행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조계산 선사(修禪寺)에서의 정혜결사는 세속인

백양사 해운각

今日巖前(금일암전서) 嘯久煙臺(서구연운수) 一清澗(일도청계년) 千尋碧巖頭(천심벽정두) 白雲朝影靜(백운조영정) 明月夜光浮(명월야광부) 身上無塵垢(신상무진구)

권영한

구름 걷히니 마음은 자재롭고...

心中那更憂(심중나경우) 이렇기 높다. 해운각의 주련을 음미하노라 하면 백양사의 정경한 풍경이 마음을 밝혀준다. 뿐만 아니라 높은 바위에 앉아 묵묵히 좌선삼매에 든 수행승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천길 높은 봉우리가 성명하 보이는 맑은 날에 바위같은 부동심을 뒹고자 좌선하고 앉은 그 자체가 이미 자연스런 구도의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풍광 속에서 고요한 낮과 밤의 기운을 몸에 흡입시키지 않은 몸과 그 몸을 둘러싼 배경이 풀이 아닐 수 밖에. 그래서 마음은 자재롭고 근심걱정이 없으니 그 자리가 견성성불의 자리일 것이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해설 백양사가 지리한 백양산은 산세가 아름답기로

가산학보 5집 불교이론과 정신분석 비교연구

한국의 불교사상사와 불교이론의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특징으로 하는 <가산학보 5집>(가산불교문화연구원 편)이 나왔다. 논문부와 금석문부, 원전주석부 등 3부문에 걸쳐 모두 13편의 논문이 수록된 5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서성원교수(동국대 철학과)의 '구사론(俱舍論)과 성업론(成業論)을 통해서 본 종자설(種子說)과 자관스님(가산불교연구원장)의 '군위 인각사 보각국존(普賢國尊) 정조탑비문(靜照塔碑文)'.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태아가 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유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년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민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노와갑상선성고통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항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정토불교대학 '96 하반기 개강

"정토불교대학에서는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보다 널리 펼치기 위해서 강의를 개설하고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실시합니다. 4학기 2년 과정인 본 대학은 96년 하반기 개강을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보다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강일	기간	요일	시간	차기	교과과정	"법륜스님" 개강기념 특별법회	
총제	9월6일(금)	9월6일-12월20일	매주 금	주간.야간	4차 2기	■ 제4차 제2기	■ 주제 "정토로 가는 길" ■ 일정 대전(9월2일, 월) 성남(9월3일, 화) 대구(9월4일, 수) 부산(9월5일, 목) 경주(9월6일, 금)
서초	9월5일(목)	9월5일-12월19일	매주 목	주간.야간	3차 4기	● 인간본다, 그 위대한 삶 ●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 ● 수행의 본질과 힘, 오대수행	
성남	9월3일(화)	9월3일-12월18일	매주 수	주간.야간	3차 4기		
대전	9월2일(월)	9월2일-12월20일	매주 금	주간	4차 2기		
대구	9월4일(수)	9월4일-12월18일	매주 수	주간.야간	4차 2기	■ 제3차 제4기	
부산	9월5일(목)	9월5일-12월19일	매주 목	주간.야간	3차 4기	● 불교의 세계적 변천사 ● 진리의바다, 경전의세계 ● 마음을 찾는 길잡이, 심우도	
경주	9월6일(금)	9월6일-12월17일	매주 화	주간.야간	3차 4기		

● 주간: 오전 11시 - 오후 1시 / ● 야간: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본 과정은 2기와 4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원서교부 및 문의·접수처

- 서울 총제 정토불교대학 / 전화: 02-379-1650, 1,2
- 서울 서초 정토불교대학 / 전화: 02-522-2841, 582-1080
- 성남 정토불교대학 / 전화: 0342-721-7062
- 대전 정토불교대학 / 전화: 042-534-9166
- 대구 정토불교대학 / 전화: 053-761-5970
- 부산 정토불교대학 / 전화: 051-557-2746
- 경주 정토불교대학 / 전화: 0561-772-1950

● 대상: 누구나 다
● 참가비: 6만원
● 접수문의: 각 지역 정토불교대학

정.토.불.교.대.학

맑은 마음 / 좋은 벗 / 깨끗한 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5 서일빌딩 5층
전화: 522-2841 / 582-1080